수행속 얻은 맑은 기운들 書畵로 펼쳐

서화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한다

허허당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1만3800원

사막은 사람을 푸르게 한다
풀 한 포기 없는 사막에선
사람 스스로 푸르더라
두려워마라
그대가 지금 황량한 사막에 홀로 있어도
온 세상을 푸르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로 파괴되고 상처 입은 뭇 생명들을 위로한 산골마을 선화가허허당 스님이 이제 보다 자유롭고 통쾌하게 자신의 삶을 살라며 우리들을 일으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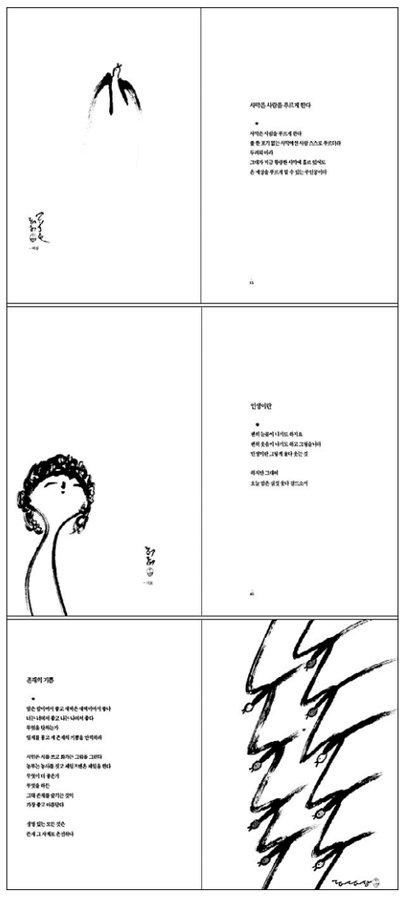
두 번째 그림 잠언집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 한다〉는 누가 나를 구제해 주길, 위로해주길, 이끌어주길 바라는 나약한 마음에 경종을 울리며, 우리들이 이미 스스로 일어날 힘을 충분히 갖는 온전한 존재임을 일깨우는 시와 그림들로 채워졌다.

고되고 힘든 나날이지만 아이처럼 순수하고 재밌게 살라는 의미에서 '소녀'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주로 실었던 전작과 달리, 이번 책은 홀로 수행하는 휴유암 주변의 '자연 벗'들을 소재 삼아 보다 간소화되고 종교색을 벗은 그림들로 꾸몄다. 더불어 이미 스님의 수만 트친(트위터 친구)들이 공감한 짧은 시구에 살을 더하고 이야기를 더한 시들은 더욱 풍성해진 의미와 깊은 울림으로 읽는 이의 마음을 툭툭 건드린다.

자기 존재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1장 '존재의 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게 되는 2장 '인생의 길',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눈뜨게 되는 3장 '행복의 길',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삼 되돌아보게 되는 4장 '사랑의 길', 홀로 훌쩍 여행길에 오르게 만드는 5장 '여행의 길', 자연 속에서 '참 나'의 길을 찾게 되는 6장 '자연의 길' 등 총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허허당 스님의 글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쓴 한 트위터리안의 말처럼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마음 저 밑바닥에서 조용히 눈뜨는 삶의 진리와 마주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허허당 스님은 트위터에서 "삶을 보다 자유롭고 통쾌하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삶의 주인이 되어)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번 그림 잠언집을 출간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이 책에는 '자유롭고 통쾌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길'로 안내하는, 마음을 빼앗는 시와 그림들이 가득하다.



허허당 스님의 글들은 잠언형식이라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

쫓아버려라 먼 훗날의 생각일랑, 지금 무조건 행복하라. 사랑하고 사랑해라 그대 존재의 가엾음을,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슬픈 것이다.

마음을 오므리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자리 없고 펴면 하늘을 덮고도 남는다. 만약 그대가 빛이라면 쫓아다니며 뿌리려 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 번지게 하라. 뺨을 스치는 바람소리 네가 있어 행복하다, 세상 하나의 진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너여서 좋고 나는 나여서 좋다, 무엇을 하든 그대 존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답다.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벗어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도 걸림 없는 것을 말한다. 때론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사람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편안하다, 그리운 사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한세상 살만하다. 이 세상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대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마음껏 뛰고 놀라는 것이다…….

30년간 산중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며, 있으면 있는 대로 세상과 나누는 집착과 소유를 떠난 길 위의 삶. 자유로운 삶의 표상으로 비워 사는 기쁨을 노래하는 허허당 스님. 저자는 산속 명상에서 얻은 맑은 기운을 시와 그림에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길을 찾고 있는 뭇 사람들의 타오르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갈해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려석불은 불교와 재래신앙 결합의 증거물

고려석불의 조형과 정신

김진숙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8천원



이 책은 고려 석불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현장 답사기다. 굽타 시대의 불상들은 인도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얼굴이며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불상들이 많다. 이 시기의 불상은 동아시아 불교미술의 모델이 되었다. 불교 미술은 불교 발생 그 이전부터 있었던 토속신앙을 불교가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불교 미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의 석불이 조성되기까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그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는 주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시대마다 특징 있는 불상들이 조성되었고 자연암석을 살려 그 바위면에 불상을 새겨 토속 신앙을 흡수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은 재래 신앙과 결합하는 좋은 예이다.

이 책에서 다룬 고려 석불은 미술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로서 나아가 재래 신앙과의 결합을 보여준 가장 한국적인 양식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저자가 산과 들에 외로이 남겨진 석불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일본 유학시절 이노우에 다다시 선생의 고려 석불 찬탄이야기를 듣고 발심하게 되면서 부터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려 석불의 아름다움과 작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니 국내에는 전문적인 자료나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석불이나 마애불은 산과 들에 많이 남아 있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 있다.

주로 폐사지에 남아 있고 산의 큰 바위나 바위 면에 조성하여 관리가 되지 않아 문화재의 중요성 면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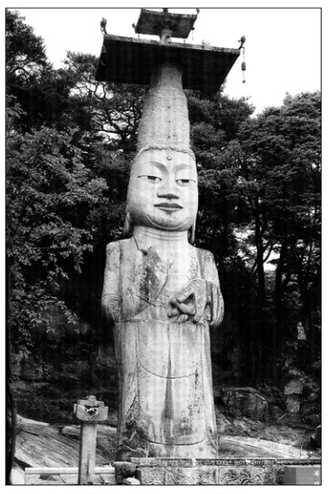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고려 석불이 조성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수 년 간의 현장 답사로 이루어 낸 결과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기도 하고, 해발 7~800m가 넘는 산을 수없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우선 제 1장 불교의 수용과 재래신앙 편에서는 삼국시대에 전래되는 습합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 2장은 고려 석불을 고찰하기 위한 작업으로 삼국과 통일신라불상과 재래신앙과 습합된 불상으로 나누어 특징을 열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장 고려시대의 불교 조각으로 특징과 조성 된 배경, 석불과 마애불을 망라해 중요하게 생각되는 중심으로 다루었다.

고려 석불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미술사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와 옷깃의 주름 선들은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과 옷 주름선…예술극치
석불 · 마애불 방치된 것 많아

일본 불교대학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세상에 내어 놓기가 부끄럽다는 저자의 겸손함이 석불의 수줍어하는 미소를 닮았다. 토지에 뿌리내린 조형의 무게는 서구적 미술 평가와는 다른 세계라고 확신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충남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저자 김진숙은?

동국대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다시 동 대학 불교학과에 편입해 학사과정을 졸업한 뒤 일본 불교대학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불교대학 종합연구소 연구원 및 교토국립박물관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삶의 쉼표, 불교미술산책〉이 있다.

'입법계품' 속에 나타난 치유 메시지 소개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 스님 | 운주사 펴냄 | 1만8천원



저자가 자신이 2010년도 박사학위 논문인 〈화엄경 입법계품의 문학성연구〉을 수정한 책이다. 불교경전은 빼어난 문학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경전에 담긴 교리적 내용의 측면만 파악·연구되어지고 있을 뿐 문학적 표현방법과 기법등 문학과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이 책은 불교의 대승경전인 〈화엄경-입법계품〉에 담긴 수승한 불보살의 경계를 선재동자와 53선지식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선재동자가 어떤 선지식을 만나면서 점차 깨달음으로 승화돼는지를 문학적 접근을 통해 살폈다. 경문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법의 의미들을 문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저자의 노력과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다.

이 책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힐링'에 내포된 치유의 개념과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동일선상에 놓고,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타난 핵심사상이 어떻게 화엄사상과 소통되는지를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화엄경〉과 불교문학에서는 먼저 〈화엄경〉의 내용구성과 '입법계품'이 어떻게 조직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결과 〈화엄경〉의 구성은 대경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특히 제 3장에서는 '입법계품'의 서술적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성상의 특성으로는 소설적 구성과 희곡적 전개 양상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장르상의 전개방식은 운문과 산문의 형식을 사용해 저자가 드러나고자 한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주의 질서에는 빈부귀천 유정무정이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치유메시지임을 이 책은 문학적 방식으로 설득력있게 풀어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사찰음식 레시피

우리집 사찰음식

정재덕 지음 | 레시피팩토리 펴냄 | 1만5800원



전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식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채식이 바로 사찰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우리 고유의 채식인 사찰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없었다. "사찰음식은 어려울 것 같다", "채식은 맛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채식인 사찰음식을 쉽게 그러면서도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를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쉽고 맛있는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저자의 이력이 특이하다. 원래 6성급 호텔의 한식당 조리장이었던 저자 정재덕 셰프. 그는 요리사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찰음식에 매료되어 미련없이 호텔을 떠나 절로 들어갔다. 그렇게 절에서 생활하며 사찰음식을 화두 삼아 수행하는 자세로 두루 배웠고, 사찰음식의 대가인 대안스님에게 사사했다. 이후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의 헤드셰프로 일했고, 2010년에는 대한명인회에서 최연소 사찰음식 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은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학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 책의 모든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있어 사찰음식의 기본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메뉴, 재료, 양념, 조리법 등을 현대화했다.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다른 음식들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메뉴를 골랐고, 마트나 시장에서 보아왔던 친숙한 식재료와 양념을 썼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조리법을 접목시켰고, 맛 또한 요즘 입맛에 잘 맞도록 일부 조정해 아주 맛있게 만들었다. 또한 2~4인 가족에 맞춘 정확한 가정식 레시피를 소개하기 위해, 출판사이자 메뉴 개발회사인 ㈜레시피팩토리의 테스트키친팀과 함께 모든 레시피를 철저히 검증했다.

김주일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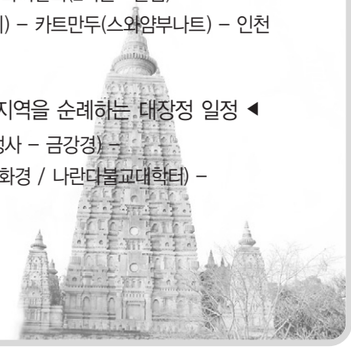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